

‘가장 과학적인 문자’와 근대 기술의 충돌

초기 기계식 한글타자기 개발 과정의 문제들, 1914-1968*

김태호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1. 들어가며

타자기는 기술사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다. 서구의 언어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그 설계와 생산 측면에서 미국식 기계 공업의 전범을 보여주었다는 점, 또 사회적으로는 20세기 초 여성의 사회 진출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 등에서 타자기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고, 따라서 많은 이들이 타자와 타자기의 역사를 연구해 왔다.

타자기의 요람이었던 서구 세계를 벗어나 로마자를 쓰지 않는 곳으로 무대를 옮기면 타자기는 또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된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서세동점의 시기, 타자기를 서구 문명의 힘과 효율의 상징으로 여긴 비서구사회의 지식인들은 타자기를 써서 자신들의 언어생활도 바꾸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라마다 글쓰기 문화가 달랐으므로 서구식 타자기를 들여오려는 시도는 나라마다 다른 곡절을 겪었다. 로마자와 비슷한 소리글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비교적 쉽게 로마자 타자기를 개조해 쓸 수 있었지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뜻글자를 쓰거나 그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로마자 타

* 투고 2011년 12월 5일. 심사 2011년 12월 26일. 게재확정 2011년 12월 27일.

[†] 이 논문은 2004년 미국 기술사학회에서 발표한 원고 “Mechanizing Korean: The Evolution of Korean Typewriter”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the History of Technology, Amsterdam, Netherlands, October 7-10, 2004)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은이는 이 발표문의 주제를 확장하여 2005년 한국과학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빨랫줄 글꼴의 변신: 공병우 타자기(1948)에서 한결체(2005)까지” (한국과학사학회 추계 학술대회, 제주도, 2005년 10월 21-23일)라는 원고를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중서와 교재 등에 간단한 글을 쓴 바 있다. 이 논문은 이미 발표한 글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초창기 한글 타자기의 기술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논문을 수정하는 데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심사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자기와는 전혀 다른 기계를 고안해 내야만 했다.¹⁾

한글 타자기의 역사는 다양한 비서구 타자기의 역사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다. 한글 타자기는 같은 소리글자인 로마자 타자기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로마자 타자기를 만들 때는 생각할 필요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조를 거쳐야 했다. 때로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기계 장치가 덧붙기도 했다. 이렇게 복잡한 개조 과정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인 글자’라는 속설과 일견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어서 더욱 흥미롭다.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나 대중 서적은 수시로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대중매체는 매년 한글날이면 한글을 사랑하고 세종대왕을 흠모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거듭 전하고 있다.²⁾ 그런데 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과학적인 글쓰기 도구’의 총아인 타자기와 결합시키려던 근대 초기의 한국인들은 한글 기계화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절감하고 각종 타협책을 강구해야 했다. 그 타협책들 가운데는 한글을 한글이게 하는 기본 속성마저 포기하는 과격한 것들도 더러 있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과학적으로 설계된 기계에 싣는 것이

1) 일문은 한자 없이는 제대로 쓰기 어려우므로 일문 타자기는 한자 타자기에 가나를 추가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일문 타자기는 스기모토 교타(杉本京太)가 1915년 발명한 이래 1980년대 전자 회로를 내장한 워드프로세서에 밀려날 때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다. 중국 타자기도 스기모토의 일문 타자기와 비슷한 형태로 발전했다. 한편 중국의 문인 린위탕(林語堂)은 이렇게 활판에서 활자를 고르는 방식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글쇠로 부수를 입력하면 전기 회로가 그 부수의 조합에 맞는 한자를 찾아 찍어주는 타자기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크고 비싸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린위탕의 타자기에 대해서는 공병우, “林語堂 先生の 明快打字機”, 『한글』 105호 (1949), 54-58쪽; R. John Williams, “The Techné Whim: Lin Yutang and the Invention of the Chinese Typewriter,” *American Literature* 82:2 (June 2010), pp. 389-419를 참조.

2) 예를 들어 레디야드(Gary K. Ledyard)의 박사논문 중 “no other alphabet in the world is so beautifully, and sensibly, rational”이라는 구절과 샘슨(Geoffrey Sampson)이 한글이 소리글자보다 한 단계 높은 “자질 문자(featural alphabet)”이라고 칭송했다는 일화는 각종 책과 인터넷 글에서 술하게 상호 인용되고 있다. Gary K. Ledyard,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The Origin, Background, and Early History of the Korean Alphabe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66), p. 202; Geoffrey Sampson, *Writing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 120. 시카고대학교의 언어학자 맥콜리(James D. McCawley)가 “한글 창제를 기념하기 위해 한글날이면 파티를 열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글을 사랑한 언어학자, 제임스 맥콜리 교수”, <http://moogi.new21.org/tc/368> (2011. 12. 30 접속) 등을 참조.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한글과 타자기의 무엇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일까? 한글 기계화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을까?

나는 이 글에서 한글 타자기의 개발은 단순히 영문 타자기의 활자와 글쇠를 한글 자모로 바꾸는 식으로는 성취할 수 없었고, 한국인의 글쓰기 방식 자체를 바꿈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주장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 발명가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던 데서 벗어나 글쓰기 문화의 변화라는 더 큰 차원의 사회적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더 설득력 있는 한글 타자기의 역사를 쓸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글 기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최초의 한글 타자기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어떤 시도를 했는지 보인 뒤, 마지막으로 “공병우 타자기”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한글 타자기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을 여러 각도에서 밝혀 볼 것이다.

로마자 타자기의 역사는 서구의 동호인과 기술사학자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정리되어 왔다. 하지만 비서구 타자기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한글 타자기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일문과 중문 타자기 연구보다도 적다. 동호인이나 특정 타자기의 옹호자들이 정리한 것을 빼면, 디자인이나 디자인사 연구자들이 한글 타자기로 찍은 글씨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을 뿐 한글 타자기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례는 흔치 않다. 한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에서 인물·기관·제도 등을 추적한 연구에 비해 인공물을 중심에 놓고 그것에 체현된 과학기술의 역사를 풀어내는 연구는 적은 편이다.³⁾ 이 글은 초창기 한글 타자기의 역사를 그 물질성에 주목하여 과학기술사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타자기의 역사 연구에 특이한 사례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사 연구의 방법론을 확장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3) 지은이가 이러한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최근의 연구 중 일부만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김근배, “네트워크에 걸려든 바이러스: 이호왕의 유행성출혈열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27권 2호 (2005), 1-25쪽; 이근성, “현대 한국 아파트 온돌의 형성: 주택공사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동오, “표준 한글 문자코드 논쟁: 완성형/조합형 논쟁을 중심으로, 1986-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지은이도 “통일벼”라는 벼품종을 매개로 1970년대 한국 농업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 바 있다. 김태호, “‘통일벼’와 1970년대 쌀 증산체제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 한글 기계화의 난제들

1) 타자기에 대한 관심

개항 후 쏟아져 들어오는 서구 근대 문물 가운데 타자기는 식자층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타자기가 서구 문명의 특징인 속도와 능력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1923년이면 다음과 같이 영문타자기 발명 50돌을 알리는 기사가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 애니 여왕시(1714년) ‘말’이라는 발명가가 최초의 寫字機를 制出하였으나 ‘말’씨가 서거후에 模型 入까지 유실되였다가 1873년 미국 ‘일리온’이란 곳에서 ‘술’씨가 완전한 사자기를 발명하였는데 ‘술’씨는 인쇄업자이며 신문기자이었다.

사자기는 기후발전되야 금에 일백오십종류의 언어를 사출하는데 此機의 발명을 따라 부녀의 경제해방을 실행하였나니 사자기는 여자 자유생활의 로를 개하여 점차로 여자는 각방면 실업에 종사케 되었다 오십년전 “일리온”은 금에 미국 紐育주 “허키머”郡인바 금년 동군에서는 “타이프우라이터” 오십년기념식을 거행하였다.⁴⁾

1930년대가 되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반도에서 직접 타자를 가르치고 배워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아래 신문 기사는 “경성 영문 타이프스트 양성소”의 설립을 알리고 있는데, 당대 명사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 강사가 중국의 외국계 기업에서 타자를 배워 왔다는 점, 그리고 타자 교육의 목적이 국내에서 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미에 도향하는 사람”들의 “유력한 고학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고학을 목적하고 구미에 도향하는 사람이 근래에 만흔에도 불구하고 아모 기술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업서 흔히 실패하고 돌아옴에 鑑하여 그들에게 가장

4) “[사해섬광] 타이프우라이터”, 『동아일보』, 1923. 8. 27, 1면. 기사 속의 “사자기(寫字機)”란 엄밀히 말하면 서양식 타자기와는 다른 기계로, 수천 개의 활자가 실린 활자판에서 글자를 뽑아 찍는 일본식 타자기를 말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타이프라이터”는 이름을 붙였고, “타자기”라는 번역어는 아직 쓰이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자기라는 이름이 통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고학자료 하나를 손쉽게 주기 위하여 趙允鏞, 尹致昊, 朴熙道 삼씨의 斡旋으로 경성영문타이피스트양성소를 시내 청진동 188 경성보육학교 구내에 신설하고 강사는 1923년 연전상과졸업후 선교회 書生生, 남경 英米煙公司 寫字生으로 경험있고 숙련한 吳國煥씨가 전무하게 되었다는데…… (후략) 5)

경성 영문 타이피스트 양성소에 대한 기사는 약 석 달 뒤인 1931년 1월 하순 다시 나온다. “시내 御成町 삼십사번지에 잇는 경성영문 타이피스트 연구소에서는 오는 이십오일 오후 1시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한다는 바 졸업생은 速成科의 4인뿐이라 한다”는 짧은 기사는 영문 타자 교육이 예상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했음을 짐작케 한다.⁶⁾ 소수의 무역회사를 빼고는 매일같이 영문 문서를 타자로 찍어낼 일이 없었으므로 영문 타자기라는 물건은 한국인의 언어생활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일문 타자기는 영문 타자기에 비해서는 널리 쓰였으나, 그 또한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깊이 스며들지는 못했다. 일문 타자기는 1915년 스기모토 교타(杉本京太)가 발명하여 니혼(日本) 타이프에서 시판한 이래 스가누마(菅沼) 타이프, 도요(東洋) 타이프, 시마다(島田) 전동식 타이프 등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있었다.⁷⁾ 스기모토 타자기(그림 1)는 수천 개의 활자를 실은 활자판에서 글자를 고르면 그 활자가 들려 올라가 롤러에 감긴 종이에 글자를 찍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가나는 50자의 소리글자이므로 영문타자기를 개조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어차피 일문은 한자를 섞어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천 자의 한자를 함께 쓰려면 이런 식의 타자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일문 타자기는 속도는 손글씨에 비해 빠르지는 않았지만 인쇄한 것처럼 깔끔한 문서를 만들 수 있었으므로 관공서, 은행, 기업 등에서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만드는 데 썼다.⁸⁾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반도에서도 타

5) “타이피스트 양성소 신설”, 『동아일보』, 1930. 11. 8, 4면.

6) “「영문 타이피스트」 졸업식”, 『동아일보』, 1931. 1. 24, 7면.

7) 장봉선(張鳳仙), “한자타자기의 발전과 전망”, 『인쇄계』 92 (1982. 6), 48쪽.

8) 입력할 글월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숙련된 일문 타자수는 1분에 30여 자 정도를 찍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아달(Raja Adal)은 일문 타자기가 속도보다 문서의 단정함을 장점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서 속도로는 펜과, 조형성으로는 붓과 경쟁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Raja Adal, “Japan's Bifurcated Modernity: Writing and Calligraphy in Japanese Public Schools, 1872–1943,” *Theory, Culture and Society* 26:2-3 (2009), pp. 233-247; Raja Adal, “The First Japanese Typewriter and Its Specters,” presentation for the Annual Meeting



그림 1. 스기모토 쿄타(杉本京太)의 일문 타자기 광고

자수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므로 여성의 사회 진출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는 일문이 꼭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구태여 일문 타자기를 쓸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래 기사에서 보듯 타자수에 대한 수요도 별로 없었다.

(문) 나는 금년에 모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상급 학교도 못 가고 그릇타고 또 취직도 못하였습니다. 말을 드르니 『타이피스트』가 되면 녀자의 직업으로 수입이 상당하다 하오니 그 내용을 좀 가라쳐 주십시오. 또 『타이피스트』 양성소는 어디어디 잇습니가 지금도 양성소예를 드러갈 수 잇습가요? (시내 일 애독자)

(답) 명치명(明治町)이라는 던차정류장에서 내려 식산은행(殖産銀行)에서 조

금 올라가면 단층집으로 『日本タイピスト養成所』라고 써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서한 내용을 무려보시면 알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녀자의 직업으로 이것이 적당할는지 의문입니다. 조선에서는 『타이프리스트』를 쓰는 회사나 은행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⁹⁾

이처럼 영문이나 일문 타자기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긴요한 물건이 아니었으므로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기계가 한국인의 언어생활 깊숙히 들어오려면 결국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는 길밖에 없었다. 당대의 식자들도 언젠가는 한글 타자기를 만들어 써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글 타자기가 기왕이면 일문 타자기처럼 불편한 것이 아니라 로마자 타자기처럼 편리하게 양 손으로 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이광수(李光洙)는 1934년에 쓴 논설에서 “문필에 종사하는 이로서 아직 원고를 손으로 쓰는 것은 아마 동양 사람들뿐일 것”이라고 개탄하고, “서양인은 관청이나 각종 사무소는 물론 이려니와 지식계급이라고 이름짓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사람마다 한 타자기를 가지는 형편”이라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조선사람들이 한문^ㅅ자를 버리고 조선^ㅅ글만을 쓴다 하면 …… 조선문화의 발달에 큰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보았다.¹⁰⁾

그런데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한글은 홀소리(모음)와 닿소리(자음)가 나뉘어 있는 소리글자이므로, 뜻글자인 한자나 음절 단위의 소리글자인 일본 가나에 비해 로마자 방식의 타자기를 만들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타자기는 단순히 로마자 타자기의 활자면(typeface)을 한글 자모로 바꾸는 식으로는 만들 수 없었다. 한글 타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만 했는데, 그 과제들은 기술적인 혁신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함께 따라야 풀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

2) 기술적 과제: 모아쓰기

첫째 과제는 모아쓰기를 기계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였다. 낱자모가

9) “가령고문”, 『동아일보』, 1926. 5. 1, 3면.

10) 이 논설은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송기주의 귀국에 즈음하여 쓴 것이다. 다음 절 참조.

독립된 공간을 차지하는 로마자와 달리 한글은 자모를 모아 음절 글자를 구성한다. 모아쓰기는 한글의 “과학성”을 잘 보여주는 고유한 장점으로 일컬어지곤 한다. 시각적으로 음절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모가 놓인 자리가 그 자모의 음성학적 역할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한글 말고도 음소를 모아쓰는 문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음절과 음소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여 모아쓰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¹¹⁾

그런데 한글의 우수성의 지표로 흔히 거론되는 모아쓰기는 한글 기계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자소를 한 자리에 모아 음절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자의 움직임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로마자 타자는 한글 글자를 찍을 때마다 종이가 감겨 있는 둥글대(platen)가 한 칸씩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의 활자만을 한글 자모로 바꾸면 모아쓰기는 할 수 없는 풀어쓰기 타자가 되어 버린다. 가로 모음(‘ㅏ’, ‘ㅑ’, ‘ㅓ’ 등)이나 받침은 먼저 찍힌 자모의 아래 찍혀야 하므로, 글쇠 중 일부를 둥글대를 움직이지 않는 ‘안움직글쇠’로 만들어야 모아쓰는 한글 타자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모아쓰기를 기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를 위해 어떤 글쇠를 안움직글쇠로 만들 것인가 등의 문제가 한글 타자기 발명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음절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낱자모들의 모양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그림 2]는 자음 기억(ㄱ)과 모음 우(ㅜ)를 예로 들었는데, 기억은 초성으로 쓰일 때는 최대 열네 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을 갖게 된다. 쌍기역(ㅍ)을 따로 글쇠를 마련하여 찍지 않고 기억을 두 번 눌러 찍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스물여덟 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을 생각해야 한다. 종성의 기억과 쌍기역까지 생각하면 모두 서른 가지가 된다. 종성에 쓰이는 모음도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ㅏ’나 ‘ㅑ’를 복모음의 일부로 쓰는 경우 등을 생각하면 두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을 마련해야 한다. 즉 활자 인쇄처럼 균형 잡힌 글자를 타자기로 찍어 내려면 적어도 300여 개의 글쇠가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인쇄기처럼 미려한 모양새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자모를 제자리에 모아 찍으려면 하나의 자모에

11) 김경석, “모아쓰는 글자는 한글뿐인가?”, 『한글세소식』 185 (1988, 1), 14-15쪽, 186 (1988, 2), 12-14쪽, 187 (1988, 3), 16-17쪽.

C (ㄱ)	V (ㅏ)	C _e (ㄴ)
가 고 과 구 귀 그 기	우	낙
각 곡 객 국 객 극 격	옥	낙
까 꼬 파 꾸 꺾 꼬 꺾	위	
깍 꼭 짝 꼭 꺾 꼭 꺾	웁	

그림 2.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음 기억(ㄱ)의 형태 변화

최소한 두개의 글쇠를 배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단지 기술적 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담론을 뒤흔드는 것이 될 수 있었기에 더욱 골치 아픈 문제였다. 20세기 초반의 식자들은 한자나 가나에 비해 한글이 우수한 점은 로마자와 마찬가지로 적은 수의 자모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한다는 데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한글 타자기도 한글의 간결함을 살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한문 글자나 가나(假名)와 같은 글자는 좋은 타입우라이터가 되기 어렵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큰 인쇄 기계와 같아서 도저히 영문이나 우리 한글처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송기주의 말은 한글 타자기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대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¹²⁾ 그런데 모아쓰기와 글자꼴 등의 이유로 하나의 자모가 여러 글쇠를 갖게 된다면, 한글 타자기가 일문 또는 중문 타자기에 비해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한글 타자기에 대한 자부심의 기반에 금이 가는 셈이었다. 따라서 모아쓰기의 문제는 기계식 한글 타자기가 쓰이던 내내 발명가들을 괴롭혔다. 다음 소절에서 살펴 볼, 한글을 로마자처럼 풀어 쓰자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3) 사회·문화적 과제: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專用)

더욱이 초창기 한글 타자기는 모아쓰기 말고도 넘어야 할 장벽이 두 가

12) 송기주, “한글 타입우라이터의 유래와 발전 (상)”, 『한글』 13호 (1934), 7쪽.

지 더 있었다. 당시 한글을 쓰는 방식이 서구에서 로마자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방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한글 타자기 발명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두 번째 과제는 가로쓰기의 문제였다. 로마자 타자기는 로마자의 가로쓰기에 맞추어 개발되었으므로 글쇠를 하나 누르면 등글대가 한 칸 가로로 이동하여 다음 글자가 찍힐 자리를 내어 주고, 한 줄을 다 쓰면 등글대가 종이를 아래에서 위로 한 줄씩 밀어 올리게끔 설계되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종이의 오른쪽 위부터 아래로 글씨를 써 나가는 세로쓰기가 일반적이었으므로 로마자 타자기를 그대로 쓰기가 어려웠다. 가로쓰기 메커니즘은 로마자 타자기의 핵심이었으므로, 초창기 한글 타자기의 발명가들은 세로쓰기 메커니즘을 타자기에서 구현하기보다는 가로쓰기 메커니즘에 맞추되 한글을 세로로 쓴 것처럼 보이도록 찍는 방식으로 절충을 시도하였다. 가령 타자기의 활자를 왼쪽으로 누여 만들고, 타자한 종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읽으면 오른쪽 위부터 세로로 쓴 문서로 보이는 식이다. 하지만 종이를 돌려서 글자를 찍다 보니 방금 타자한 글자가 제대로 찍혔는지도 확인이 쉽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세로쓰기를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아예 로마자처럼 가로 쓰고 가로 읽는 타자기를 만든다면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가로쓰기 타자기가 성공하려면 가로로 쓴 문서를 기꺼이 읽을 독자가 있어야 했다. 글을 세로로 쓰고 읽는 것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세로로 쓰는 한문의 전통을 따라 한글도 세로로 쓰도록 발전해 왔고, 일제강점기에도 세로로 쓴 일문이 공식적으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가로쓰기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글에 대한 관념과 인식의 틀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였다. 가로쓰기를 주창한 이들은 가로쓰기가 한글이 한자 문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아울러 가로쓰기를 채택하면 로마자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기에도 편하고,¹³⁾ 타자기

13) 로마자나 아라비아 숫자는 세로쓰기에 맞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세로 쓴 문서에 보기 좋게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때문에 수학교과서는 1900년대 초반부터 전체를 가로 쓰거나 숫자 계산하는 부분만 가로 쓴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한글공방의 한글공부방 - #8 숫자이야기, 한글과 숫자의 조화 과정”, 『폰트로 짓는 타이포 세상, 폰트클럽』 <http://www.fontclub.co.kr/arTypo/typoview.asp?boardtype=45&subtype=05&boardnum=7296> (2011. 11. 30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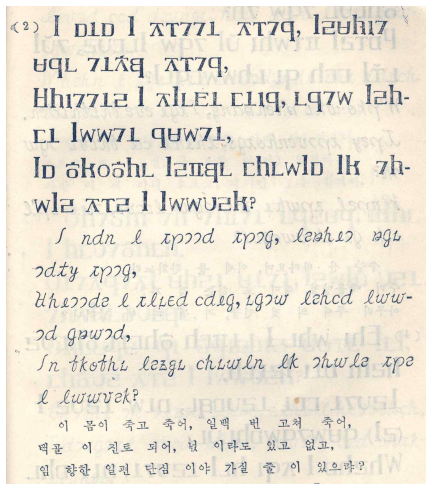


그림 3. 최현배가 『글자의 혁명』에서 제시한 풀어쓰기 한글 예문. 초성 이응(ㅇ)을 쓰지 않는 것은 풀어쓰기 주창자들의 공통적 요구였다. 한글의 대소문자와 필기체까지 설정한 것은 최현배가 꿈꾼 “글자의 혁명”이 로마자를 목표로 삼은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나 인쇄기와 같은 서양식 기계를 도입할 때에도 개조할 부분이 줄어들어 더 효과적으로 한글의 기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⁴⁾

가로쓰기를 지지한 이들 중 많은 수는 한 발 더 나아가 ‘가로 풀어쓰기’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받침을 아래에 적는 것이 세로 쓰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한글을 가로 쓰다 보면 결국은 로마자처럼 날자모를 풀어쓰게 되리라고 내다보았다.¹⁵⁾ 또 풀어쓰기로 한글을 더 로마자에 가깝게 바꾸면 글꼴 개발이나 기계화가 더 쉬워지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한글”이라는 이름을 짓고 한글 맞춤법을 정초한 주시경이나, 그의 뒤를 이어 한글 연구를 주도하고 해방 후 남한의 어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최현배 등이 모두 가로 풀어쓰기의 옹호자였다(그림 3).¹⁶⁾ 하지만 가로 풀어쓰기는 지나치게 과격한 주장이라 여겨 모아쓰기를 유지한 채 가로로 쓰는 길을 택한 이들도 많았다. 공병우를 비롯하여 1950-60년대의 타자기 개발자들도 가로

14) “한글 『풀어쓰기』를 건의: 제정 오백년에 문자 대혁명, 우리 문화향상에 새 과제. ‘한글 가로쓰기연구회’에서 제기”, 『동아일보』, 1946. 9. 18, 2면.

15) 일례로 최현배는 ‘가로쓰기’와 ‘풀어쓰기’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구본영·한옥현, “풀어쓰기한글의 타당성 고찰”,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29호 (2009), 4-11쪽.

16) 주시경은 “말의 소리”(1914)에서 가로 풀어쓰기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가로 풀어쓰기를 주창한 최초의 문헌이다. 김윤경, “한글 가로쓰기의 사적 고찰”, 『한글』 42호 (1937), 8-15쪽. 해방 후 최현배는 『글자의 혁명: 한자 안 쓰기와 한글 가로쓰기』(군정청문교부, 1947)에서 다시 이를 주장했다.

모아쓰기를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였다.

가로쓰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이것 또한 한글 타자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것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였다. 한자를 그대로 살려 한자어를 쓰는 것이 보통이었던 당시 언어생활의 실정에 맞게 타자기를 만든다면 결국 한자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일문 타자기의 활자판에 가나 대신 한글 자모를 싣는 정도밖에는 만들 수가 없었다. 실제로 한자 겸용 한글 타자기는 일문 타자기를 개조하여 가나 대신 자주 쓰는 한글 음절글자 수백 자를 한자와 함께 싣는 것이었다.¹⁷⁾ 즉 ‘한자를 찍을 수 있는 한글 타자기’란 사실상 ‘한글 음절글자도 찍을 수 있는 한자 타자기’였던 것이다. 이런 방식의 절충을 거부하고 간결한 소리글자라는 한글의 장점을 살려 기계화하려면 한글만 찍는 타자기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한글 전용(專用)이라는 주장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광란”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¹⁸⁾ 과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해방 직후의 고조된 분위기에서 한글 전용의 대의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실행의 폭과 속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남한 국회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1948년 10월 1일 통과시켜 한글 날인 10월 9일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국회가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률 가운데 하나였다.¹⁹⁾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한 그 법안에도 “다만 얼마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일거에 한글 전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과 현실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타협의 결과였다.²⁰⁾ 조선어학회와 한글문화보급회 등 운동단체들은 “한글 전용 촉진회”를 설립하고 “한글 전용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습회를 여는 등

17) 해방 직후 조선타이프, 동아타이프, 고려타이프 등이 조선에 남아 있는 일본 타자기 회사를 인수하여 300자 가량의 한글 음절글자와 한자, 또는 2000자의 한글 음절글자(한글 전용)를 싣은 타자기를 제작했다. 또 장봉선은 ‘장타이프사’를 세우고 1945년 10월부터 한글 1200자와 한자 1200자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타자기를 만들었다. 장봉선, “한자타자기의 발전과 전망”, 50쪽.

18) 이상은(李相殷), “[월요시평] 상용한자의 제한”, 『동아일보』, 1949. 5. 9, 1면.

19) 대한민국 국회,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호)”, 『관보』 제8호 (1948. 10. 9).

20) 조헌영(趙憲泳)이 제출한 수정안은 86 대 22(재석 131명)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문서는 한글 당분간 병용키로”, 『동아일보』, 1948. 10. 2, 1면.

여세를 몰아 한글 전용을 밀어붙이고자 했다.²¹⁾ 하지만 대의명분과 현실 사이에는 적잖은 틈이 있었다. 당장 한글로만 쓴 문장은 뜻이 명확치 않으며, 급격한 한글 전용이 세대간 단절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식자층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상용(常用) 한자”를 선정하여 “한글 전용을 전제로 한자 제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한글전용론자와 한자제한(적사용)론자 사이의 논쟁이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다.²²⁾ 한자제한론자들은 한글전용론이 “쾌상적(機上的) 합리주의”로 “문화의 전통성과 생명성을 무시”하고 “신문 하나 편지 하나 보지 못”하는 “문화불구자”를 양산한다고 비판하고, 심지어 공산주의와 함께 민족문화를 노리는 “이군(二軍)의 위협”이라는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날뜰[비행기]” 같은 당대의 기준으로는 무리하게 보이는 신조어도 한글전용론자들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싸잡아 비판 받았다.²³⁾ 심지어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월북한 국어학자 이극로(李克魯)와 엮어 “이극로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색깔론도 횡행했다.²⁴⁾ 이에 대해 한글전용론자들은 한자병용론자들을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한 최만리(崔萬理)에 비유하며 대응했다.²⁵⁾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글 전용 논쟁은 잠시 잠잠해졌으나, 식자층의 완강한 반발로 결국 제한적인 한자 병용이 신문·잡지·공문서 등에서 주류로 자리 잡았다.

한글 전용의 이상이 현실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글 타자기는 어떤

21) “한글전용지도자 양성 강습회 개최”, 『경향신문』, 1949. 1. 12, 4면; “한글 一色으로: 夏期를 이용 강력한 운동 전개”, 『경향신문』, 1949. 7. 26, 2면.

22) “사용한자 제한 문교부서 심의”, 『경향신문』, 1949. 1. 21, 4면.

23) “[사설] 한자 제한 긴급, 한글 전용 폐지하라”, 『동아일보』, 1949. 10. 11, 1면. 한편 이승만은 현행 맞춤법이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 있다며 1954년 돌연 “신구약과 기타 국문서에 쓰던 방식”으로 맞춤법을 간소하게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국문에 대하여(1954년 3월 27일)”, 『대통령이승만박사답화집 2』, 공보실, 1956). 이는 ‘먹다’의 활용형을 ‘머꼬’, ‘머그나’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쓰자는 것으로, 국어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소위 “철자법 파동”을 낳았다(“[사설] 문화파동”, 『동아일보』, 1954. 3. 30, 1면). 이승만이 약 1년만인 1955년 9월 맞춤법 개정 의지를 접어들었으로써 한글 간소화 파동은 끝났으나, 이러한 혼란상은 도리어 한글전용론자는 ‘쾌상적 합리주의자’라는 선입견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24) “버림받은 「한글」 전용? 국민교 한자 병용, 국회 결의에 문교당국 태도 주목”, 『경향신문』, 1949. 11. 6, 2면.

25) 김진억(金鎭億), “시대역행의 한자어 강요: 이승녕씨를 반박함”, 『경향신문』, 1949. 6. 29~7. 2.

쓸모가 있을 것인가? 한글 기계화를 위해서는 어떤 타자기를 만들어야 하는가? 한글의 장점을 포기하고 한자 타자기와 같은 형태의 타자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글의 우수성을 살리는 대신 한글 전용 타자기는 쓸모없다는 대중의 인식과 맞서 싸울 것인가? 이는 한글 타자기 개발에 뛰어들어 이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제였다. 또한 한글 타자기의 개발이 단순한 기술적 도전에 머무르지 않고 차츰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자라나게 된 단초이기도 했다. 논의 지형이 복잡했던 만큼 한글 타자기를 둘러싼 논쟁의 전선도 복잡다기했다.

3. 최초의 한글 타자기들

이러한 여러 갈래의 과제들에 대해 해방 전까지 몇 명의 발명가들이 나름의 답을 내놓았다. 비록 그 가운데 사업화까지 성공한 경우는 없었지만, 그들의 발명은 후배 발명가들의 출발점을 마련해 주었으므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절에서는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모아쓰기 한글 타자기인 이원익 타자기(1914년 무렵)와,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던 송기주 타자기(1934년 무렵)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대의 발명가들이 한글 기계화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들 외에도 1913년 미국 특허를 출원한 언더우드(Underwood) 타자기와 재미교포 목사 김준성이 만들었다는 타자기를 비롯하여 로마자 타자기를 풀어쓰기 타자기로 개조하여 쓴 사례가 더러 있다.²⁶⁾ 하지만 풀어쓰기 타자기의 사용 범위나 영향력은 모아쓰기 타자기에 비해

26) 언더우드 타자기는 연희전문학교의 창설자인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가 개발하여 그의 형인 존 토마스 언더우드(John Thomas Underwood)가 세운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Underwood Typewriter Company)에서 만들었다고 전한다. 타자기 제조와 한국 선교 양쪽으로 모두 언더우드 가문과 관련되어 있고, 그 발명 시기가 이원익 타자기보다도 앞선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풀어쓰기까지 포함할 경우 최초의 한글 타자기라는 이름을 얻을 수도 있다. J. Frank Allard, "Type-writing Machine," U.S. Patent 1,169,739, filed April 12, 1913, and issued Jan 25, 1916. 언더우드 타자기는 초창기 발명가들이 가끔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 특허를 딴 최초의 한글 타자기였다는 사실은 이 글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의 조언으로 알게 되었다. 지면을 빌어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서는 미미했으므로 여기서는 모아쓰기 타자기에 국한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1) 이원익의 타자기

이원익(李元翼, 미국 이름 Wonik Leigh)은 버지니아주 로어노크 대학(Roanoke College)에서 상업을 전공한 재미교포라는 이야기 정도를 빼고 별달리 알려진 바가 없다.²⁷⁾ 하지만 그가 미국에서 1914년만든 한글 타자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모아쓰기 한글 타자기다.²⁸⁾ 그는 당시 미국에서 쓰이던 칠(7)행식 스미스 프리미어 10호(Smith Premier 10) 타자기의 활자를 한글로 개조하여 한글 타자기를 만들었다. 칠행식 타자기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생산되었던 타자기로, 오늘날의 로마자 타자기와 비슷하지만 대문자와 소문자가 별도의 글쇠에 배당되어 있어서 로마자 여섯 줄과 기호 한 줄을 합하여 모두 일곱 줄의 글쇠를 가지고 있다.²⁹⁾ 태국에서도 1890년대에 왕실의 의뢰로 스미스 프리미어 칠행식 타자기를 개조하여 타이어 타자기를 만든 일이 있다.³⁰⁾

이원익 타자기는 오늘날까지 실물이 남아있는 것은 없고,³¹⁾ 임종철이 타

27) 이원익은 글꼴 디자이너 이원모와 형제 사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원모(생몰연대 미상)는 1928년 동아일보의 활자체 공모에 명조체 활자를 공모하여 당선되었고, 이원모가 도안한 서체는 이와타 자모(岩田字母) 회사의 바바(馬場)가 조각하여 1933년부터 『동아일보』 본문에 사용되었다. 한국전쟁 후 이원익에 대한 정보는 남아 있지 않고, 이원모는 월북하여 『로동신문』의 조판에 참여한 것으로 전한다. 임근준(이정우), “최초의 한글 타자기: 이원익의 ‘글씨 쓰는 기계’”, <http://chungwoo.egloos.com/314345> (2011. 10. 5 접속); “한국디자인사료 데이터뱅크: 이원모”, http://www.designdb.com/history/06_map/a_1_2_1.html (2011. 9. 30 접속) 등을 참조.

28) 이진일이라는 사람이 이원익이 타자기를 만들 때 협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송기주, “한글 타이프라이터의 유래와 발전 (1)”, 『한글』 13 (1934. 6), 6쪽.

29) 스미스 프리미어 10호의 사진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Virtual Typewriter Museum: Smith Premier 10,” <http://www.typewritermuseum.org/collection/index.php3?machine=smithpr10&car=kf>, accessed on November 3, 2011. 이원익의 타자기가 칠행식이었다는 것은 공병우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원익 스스로도 1914년 스미스 프리미어 10호를 개조했다는 광고를 낸 바 있다.

30) “The Origins of Thai Typewriter: Great Pride the World Must Note,” <http://www.t-h-a-i-l-a-n-d.org/smithpremier/smithpremierorigin.html> (2011. 10. 31 접속).

31)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이원익 타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사진은 오늘날의 자판과 비슷한 사(4)행식 타자기의 사진으로 스미스 프리미어 10호로 보기는 어렵다. “과학기술사 DB 자료: 이원익

자기의 역사를 정리한 글에 자판 배열과 작동 원리를 소개한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³²⁾ 공병우도 신문지상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자신을 한글 타자기의 발명자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원익 타자기를 언급한 적이 있다.³³⁾ 이 타자기는 당시의 쓰기 관행을 존중하여 세로쓰기 문서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활자가 왼쪽으로 드러누워 있어서 로마자를 가로쓰기하듯 글씨를 찍고 나중에 종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보면 세로로 쓰인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모아쓰기를 위해 다음 입력이 반드시 필요한 글쇠(초성, 받침과 함께 쓰는 중성)는 안움직글쇠로 만들고, 나머지 글쇠는 움직글쇠로 만들었다. 그리고 글자꼴을 위해 다섯 별의 글쇠를 만들었다. ‘ㅏ’, ‘ㅑ’ 등 세로꼴 모음과 쓰는 초성이 한 별, ‘ㅓ’, ‘ㅕ’ 등 가로꼴 모음과 쓰는 초성이 한 별, 받침 없이 쓰는 긴 중성이 한 별, 받침과 함께 쓰는 짧은 중성이 한 별, 중성이 한 별이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자판의 배열은 [그림 4]와 같다.³⁴⁾

이원익 타자기는 알려진 최초의 한글 타자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림 5]와 같은 광고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는 차원을 넘어 다른 사용자들에게 판매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글씨체가 예뻐다”는 증언도 있다.³⁵⁾ 공병우도 해방 직

타자기”, http://www.science.go.kr/board/view.sko?boardId=SCI_SCIPAPER&boardSid=592&menuCd=AA08007006000&contentsSid=1028&orderBy=&startPage=1&searchType=&keyword=&searchStartDt=&searchEndDt=&dataSid=1769495 (2011. 11. 3 접속). 사진 속의 타자기는 외형상 1920년 판매가 시작된 레밍턴 포터블 모델1(Remington Portable Model 1)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레밍턴 포터블 모델 1의 외형은 Richard Polt, “The Classic Typewriter Page: Remington Portables”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ite.xavier.edu/polt/typewriters/rem-portables.htm#1> (2011. 11. 3 접속).

32) 임종철 외, 『타자 및 워드프로세싱 실기 교육 방법론』 (종문사, 1988).

33) 공병우, “한글타자기의 발명자는 누구? 「주영한」씨에 대하여 (전2회)”, 『조선일보』, 1958. 8. 19, 4면; 1958. 8. 20, 4면.

34) 임종철 외, 『타자 및 워드프로세싱 실기 교육 방법론』, 48-49쪽을 참조하여 지은이가 다시 그림. 임종철 등은 4행식 타자기로 생각하고 자판 배열을 그려 놓았는데, 7행식에 맞추어 다시 배열하였다. 숫자와 기호의 배열은 임종철 등의 그림과는 다르나 현존하는 7행식 스미스 프리미어 타자기를 참고하여 그를 따랐다. 안움직글쇠는 어둡게 표시하였다.

35) 타자기 발명가 장봉선은 “1958년 12월에 뉴욕한국영사관 남궁[엽] 영사가 보관한 것을 보았는데 글씨체가 예뻐다”고 한다. 장봉선, “한글 사무자동화의 발전사: 한글 사무자동화의 연혁 (I)”, 『인쇄계』 318호 (2001. 4), 1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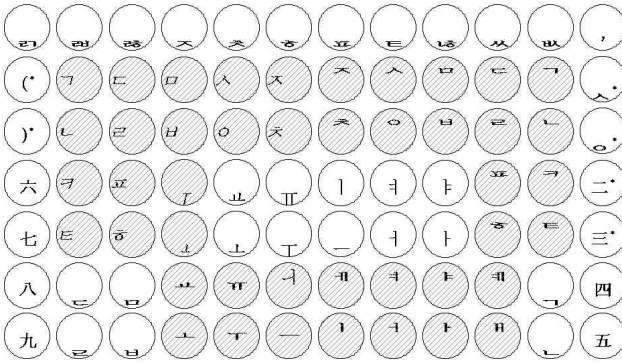


그림 4. 이원의 타자기의 자판 배열. 임종철 외, 『타자 및 워드프로세싱 실기 교육 방법론』 (중문사, 1988), 48-49쪽을 토대로 지은이가 다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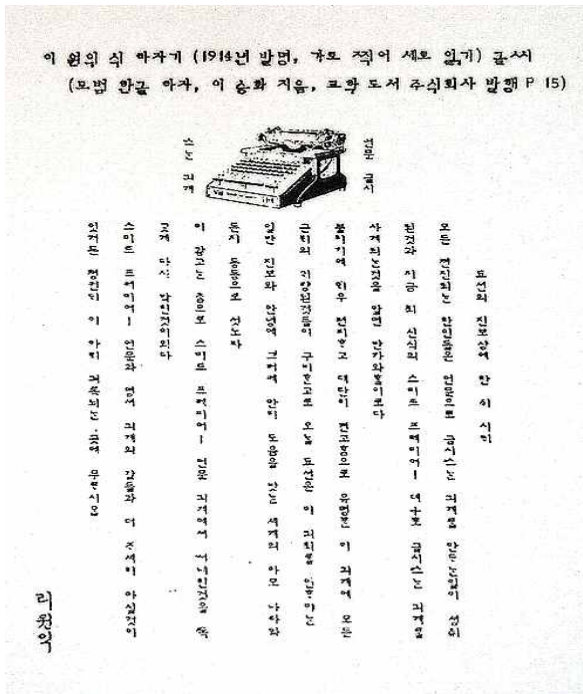


그림 5. “언문 글씨 쓰는 기계”, 이원의 타자기의 광고 이승화 『모범한 글타자』 (교학도서주식회사, 1973), 15쪽.

후 한글 타자기를 만들기에 앞서 이원익 타자기를 손에 넣어 분석했다고 자서전에서 회고하였는데³⁶⁾, 이에 비추어 보아 1940년대 말까지도 이원익 타자기를 서울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원익 타자기가 얼마나 널리 쓰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병우도 위의 일화에서 이원익 타자기를 일부러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무기 상회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회고한 것으로 보아, 이원익 타자기의 존재가 당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듯하다. 또한 칠행식 타자기를 개조한 것이다 보니 이후에 개량된 사행식 타자기처럼 촉지 타자(touch typing, 자판을 보지 않고 손가락 자리를 외워 타자하는 것)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 이후에는 칠행식 타자기는 사행식 타자기에 자리를 내 주었으므로 이원익 타자기를 개조하여 생산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 소개할 송기주는 이원익 타자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우리 한글 타입우라이터가 세상에 처음 나오기는 지금[1934]으로부터 이십년 전에 이원익 이진일 두분의 힘으로 된것인데, 기계는 옛날 웨밍톤회사의 오래된 모형으로³⁷⁾ 글자를 박이는 키의 수효가 여든 여덟이었다. 그러나 글자의 모양이 아름답지 못하고, 자형이 불규칙하고 키의 수효가 많아서 시간의 경제도 되지 못하여 실제 사용에는 적합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우리 사회에 넓이 사용되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애쓴 공로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 언더운 박사가 연구하여 기계를 만들었으나, 기계뿐이었고[시판되지 않았다는 뜻] 키의 윗 부분은 영문의 대자만 쓰게 되고, 아래 부분은 우리글을 쓰게 되었는데, 글자의 모양은 매우 불규칙하여 보기에 서툴러서 도리어 처음에 이씨 두분이 만든것보다도 완전하지 못하여 우리말을 자유로 쓸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³⁸⁾

36)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대원사, 1989), 81쪽.

37) 스미스 프리미어는 1900년대 초반 레밍턴(Remington)에 합병되었으나, 1930년대까지 스미스 프리미어라는 상표를 유지하고 제품을 생산하였다. Richard Polt, "The Classic Typewriter Page: Remington Portables" 참조.

38) 송기주, "한글 타입우라이터의 유래와 발전 (상)", 7쪽.

2) 송기주 타자기

이원익이 타자기를 개발한 지 15년 무렵 지난 1929년 초, 『동아일보』는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송기주(宋基柱, 미국 이름 Keith C. Song)가 “다년간 문데되든 조선문 형서법과 타이부라이트 인쇄기계를 발명하야”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를 보급키 위하야 미국에 잇는 동포들로 조선타자기판매회사와 조선문개량협회를 조직하고 그 선전에 노력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타자기의 가격은 “사무실용은 백십오원, 여행용은 구십칠원 오십전 가량”이었다.³⁹⁾ 송기주는 1900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 평양 광성고보를 거쳐 1921년 연희전문학교 농과를 졸업하고 1924년까지 교편을 잡았다. 1924년 미국으로 떠나, 1년간 하와이에서 체류한 뒤 1925년부터 텍사스 주립대학교(휴스턴)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다.⁴⁰⁾ 그는 대학 졸업 후 시카고대학교 지리학과와 굿(John Paul Goode) 교수 문하로 옮겨 지도 제작을 배우고, 시카고 근교에 본부를 둔 지도 제작사인 랜드 맥날리(Rand McNally and Company)에서 지도 제작 및 도안 일을 하게 되었다.⁴¹⁾ 그러던 중 “평소에도 타자기에 취미를 가지고 잇던터에 미국에 건너가 잇는 동안 이 방면의 문명이 전미주를 휩쓸고 잇는데 느끼어 어찌하면 우리글도 이러한 문명의 기계를 이용하야 볼 수 잇을가” 생각한

39) “조선문형서 타자기 발명 - 재미 송기주씨의 신발명 (미국 특허국에 제출)”, 『동아일보』 1929. 1. 17, 2면. 다만 특허 공고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출원이 승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특허 정보를 확인해 준 심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40) 송기주의 출생과 도미 전 경력은 그가 1926년 홍사단에 입단을 희망하며 낸 이력서를 참조하였다. “홍사단 입단 이력서”,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자료번호1-H01508-003, <https://search.i815.or.kr/ImageViewer/ImageViewer.jsp?tid=oo&id=1-H01508-003&pid=> (2011. 10. 25 접속).

41) 굿(1862-1932)은 미국 지리학 형성기를 주도한 인물이다. http://en.wikipedia.org/wiki/John_Paul_Goode 참조 (2011. 10. 5 접속). 송기주가 시카고에 갔을 무렵은 굿의 말년에 해당하는데, 그곳에서 송기주가 “교학하였다”는 기록은 더러 있으나 정확히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최신의 조선지도: 송기주씨가 고심 완성”, 『조선일보』 1936. 11. 6 석간, 2면. 다만 뒷날 귀국 후 송기주가 ‘조선지형대지도’ 사업을 하면서 낸 광고에 굿의 서한(1929년 1월 21일자)을 다음과 같이 일부 소개하고 있다. “송기주군은 시카고시 맥날리 지도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나의 세계지도서를 삼년간 제도하였으며 또 일년간 시카고대학 지리학부에서 키-스톤회사의 발행하는 나의 세계지도교육용 영화[?]판을 제작하였다. 그는 정밀한 지도를 제도함에 최적자이며 특히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에 매우 나의 뜻을 마추어주었다. ……” 『조선일보』, 1937. 1. 10 석간, 3면.



그림 6. 송기주(원 안)와 송기주 타자기의 자판. 완성된 음절글자처럼 보이는 글쇠들이 있는 것은 시프트를 눌렀을 때와 안 눌렀을 때 찍히는 자모를 붙여 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운데 줄의 '여' 글쇠를 그냥 누르면 'ㄹ', 시프트와 누르면 'ㅇ'(초성)이 찍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완성된 우리글 타자기 - 해외 각국 칠년 만에 송기주씨가 성공", 『동아일보』, 1934. 1. 24 석간, 2면.

것이 송기주가 언론에 공개한 타자기 발명의 계기였다.⁴²⁾

1929년 제작했다는 타자기가 어떤 구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외형상 해먼드 멀티플렉서 스트레이트 키보드(Hammond Multiplexor Straight Keyboard)로 추정되는 타자기 사진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글쇠의 배열이나 작동 원리는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³⁾ 다만 1934년의 기사에 “그동안에 횡서로 타자기를 만들다가 역시 길이로 쓰는 것[세로쓰기]을 옳게 보고 다시 고치어” 만들었다는⁴⁴⁾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29년에 만들었던 것은 가로쓰기 타자기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⁴⁵⁾ 이에 비해 송기주가 1934년 선보인 타자기는 언더우드 포터블(Underwood Portable)을 개조한 것으로, 이원익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세로쓰기에 맞추어 돌아누운 글자를 가로로 찍는 타자기였다(그림 6).⁴⁶⁾ 글쇠

42) “[우리글 타자기를 완성한] 발명가 송기주씨 입경”, 동아일보 1934. 3. 1 조간, 2면 “문자문화의 신기축 우리글 언문타자기: 완전하고 경편 신속한 것이라고, 재미동포 송기주씨 발명”, 『조선일보』, 1934. 1. 24, 2면.

43) “조선문형서 타자기 발명 - 재미 송기주씨의 신발명 (미국 특허국에 제출)”, 『동아일보』 1929. 1. 17, 2면. 해먼드의 외형은 Thomas A. Russo, *Mechanical Typewriters: Their History, Value, and Legacy* (Atglen, PA: Schiffer Books, 2002), p. 136 참조.

44) “[우리글 타자기를 완성한] 발명가 송기주씨 입경”, 『동아일보』 1934. 3. 1 조간, 2면.

45) 이것이 풀어 쓰는 가로쓰기 타자기였다는 주장도 더러 있으나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46) 언더우드 포터블의 외형은 Russo, *Mechanical Typewriters*, pp. 217-221을 참조. 언더우드 포터블은 레밍턴 포터블과 외형이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 “이원익 타자기”로 소개되어 있는 타자기(각주 10번)가 사실은 송기주 타자기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또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는 자음 세 벌과 모음 한 벌을 합쳐 네 벌이었다. 세 벌의 자음 글쇠는 세로 모음과 어울리는 자음, 가로 모음과 어울리는 자음(받침을 겸함), 복모음과 함께 쓰는 작은 자음이었다. 자음은 모두 안움직글쇠, 모음은 모두 움직글쇠여서 받침이 있는 음절을 찍고 나면 사이띄개를 한번 눌러주어야 다음 글자를 찍을 수 있었고 받침 있는 음절글자와 다음 음절글자 사이에는 반글자씩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⁴⁷⁾

송기주가 1934년 개발한 타자기는 한글 타자기의 “완성”으로 일컬어지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1월에 송기주가 새 타자기를 공개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3월에 송기주가 귀국하자 그의 동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송기주의 귀국에 맞추어 이광수는 『조선일보』 1면에 다음과 같은 논설을 실어 한글 타자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3월 20일에는 “모교인 연희전문과 또 발명학회를 비롯하여 교육계와 언론계 기사사회유지 26명의 발기로” 명월관에서 “조선문타자기 완성축하회”가 열렸다.⁴⁸⁾ 이러한 관심과 기대는 문인과 식자들이 타자기를 근대화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一事一言: 송기주씨의 한글타자기

송기주라고 하는 이가 미국에서 여러 해 고심연구한 결과로 조선글타자기를 발명하였다.

지금까지에 써우는 조선글타자기라는 것은 일본문 타자기와 가티 여러 백자의 활자를 늘어노코 한자씩 한자씩 골라가며 찍는 것이었스니 그것은 일종의 채자 식자였고 서양글타자기와 가튼 의미로 본 타자기는 아니었스나 송씨가 발명한 것은 단지 마흔두개의 키이를 가지고 어떠한 조선글이든지, 어떠한 철자법이든지 다 찍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영문이나 독일문 타자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진실로 조선글을 위하여서는 획기적인 큰 발명이다. 만일 조선사람들이 한문글자를 버리고 조선글만을 쓴다하면 이 타자기와 또 이 시스템을 기초로 한 인쇄술로 하여 조선문화의 발달에 큰 혁명을 이룰 것이다.

이 타자기는 얼마 아니한 연습으로 누구나 붓으로 쓰는 이 상 빠르게 찍을 수

47)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81-82쪽.

48) “조선문타자기 완성축하회 개최: 20일 오후 6시반 명월관서, 각방면 유지 발기로”, 『동아일보』, 1934. 3. 20 조간, 2면.

잇슬뿐더러 정확하게 쓸수가 있고 또 한꺼번에 네다섯벌을 복사할 수도 잇스며 등사용원지를 찍는데도 리용할 수 잇슬 것이다. 서양인은 관청이나 각종 사무소는 물론이여니와 지식계급이라고 이름짓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사람마다 한 타자기를 가지는 형편이니 이로부터 우리도 우리 조선들의 타자기를 넓히 쓰는 날이 오기를 아니 바랄 수 업다.

문필에 종사하는 이로서 아직 원고를 손으로 쓰는 것은 아마 동양사람들뿐일것 이여니와 이제 조선사람들은 송씨의 타자기로 하여 이 원시상태를 벗어나게 되 었다.⁴⁹⁾

송기주는 1934년 귀국 후 타자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귀국 직후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당장 최대의 수요처는 “미주에 잇는 조선 동포나 단체”였지만, 일본 고베(神戸)에 있는 미국 언더우드사의 아시아 총 판인 다드웰(Dodwell and Company)이 한반도로 수입과 배급을 맡았다.⁵⁰⁾ 그 해 5월에는 “송일상화(宋一商會)의 “조선글 타자기” 광고를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무렵에는 송기주가 본격적으로 타자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7).⁵¹⁾ 같은 해 10월에는 언더우드사에서 제작한 타자기가 “대소형 전부가 완성되어 미국으로부터 도착되었으므로” 종로 화신백화점에서 전시되기도 하였다.⁵²⁾ 또한 1936년 1월 1일 『동아일보』는 “발명조선의 귀중한 수확: 혁혁한 先人遺業에 천재적 창안”이라는 두 면짜리 새해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에서도 송기주 타자기는 해외 동포도 발명에 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다.⁵³⁾

그러나 송기주의 타자기 사업은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타자기에 대한 수요가 충분치 않았던 상황에서 “휴대용이 백불 가량이 고 사무용 큰 것은 약 오백불 가량”⁵⁴⁾인 값비싼 타자기를 팔아 사업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1935년 평안남도 강서에 사는 김병

49) 長白山人[이광수의 호], “一事一言: 송기주씨의 한글타자기”, 『조선일보』, 1934. 3. 2 조간, 1면.

50) “(우리글 타자기를 완성한) 발명가 송기주씨 入京”, 『동아일보』, 1934. 3. 1 석간, 2면.

51) 『동아일보』, 1934. 5. 12 조간 5면.

52) “우리글 타자기 기계 전부 진열”, 『동아일보』, 1934. 10. 20 조간, 2면.

53) “재외동포도 발명에 고심: 송씨의 한글 타자기”, 『동아일보』, 1936. 1. 1. 42면.

54) “정교한 우리글 타자기 - 오년간 고심연구하여 성공한 송기주씨 귀국, 본사대방”, 『조선일보』, 1934. 3. 2 조간, 2면.



그림 7. 송기주의 “조선글 타자기” 광고 『동아일보』, 1934. 5. 12 조간 5면

준(金秉俊)이라는 독지가가 “시가 이백삼십구원이나 되는” 송기주 타자기 한 대를 조선어학회에 기증했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였으니 타자기 시장이 얼마나 좁았는지 짐작할 만하다.⁵⁵⁾ 송기주는 삼십 대의 타자기를 언더우드사에 주문해 들여온 것으로 전하는데, 해방이 될 때까지 이것을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그는 이윽고 시카고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려 지도 제작으로 사업을 넓혔다. 1936년에는 송기주가 “최신의 조선지도”를 완성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고, 1937년에는 이 지도의 광고가 실렸다.⁵⁷⁾ 이 광고는 『한양상보』에 1937년 1월 1일 실렸던 전면광고를 전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송기주의 한글 타자기와 영문 타자기(언더우드 수입) 광고가 앞서 말한 이광수의 논설과 함께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당시 지도 사업과 타자기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38년 『조선일보』의 일요일 문화면에 지도의 역사와 제작 원리를 소개하는 글을 기고한 것을⁵⁸⁾ 빼면, 그 뒤로는

55) “우리를 타자기 조선어학회에 기부”, 『동아일보』, 1935. 10. 25 석간, 2면.

56) “한글타자기 완성: 십육년래 고심의 결정”, 『동아일보』, 1949. 4. 24, 2면.

57) “최신의 조선지도: 송기주씨가 고심 완성”, 『조선일보』, 1936. 11. 6 석간, 2면. 광고는 “劃時代의朝鮮地形大地圖遂完成”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1937. 1. 10, 석간, 3면에 실렸다.

신문에서 송기주와 송기주 타자기에 대한 기사는 한동안 찾아보기 어렵다. 그의 타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는지, 아니면 일본이 전쟁에 돌입하면서 사람들이 타자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해방 후 언론은 송기주 타자기를 새삼 “소개”하였다. 1949년의 『동아일보』 기사는 송기주가 일찍이 한글 타자기를 만들어 “이미 삼십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으나 당시 적[敵] 치하에 있던 관계로 그의 발전을 못보았는데” 해방후 종래의 타자기를 개량하여 “글자의 간격이 약간 벌어져 보기에 흉하던 것을 (……) 글자의 간격이 맞는 완전한 타자기를 완성”하였다고 알리고 있다.⁵⁸⁾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음절마다 사이띄개를 눌러 생기는 자간 간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길은 없다. 해방 후의 혼란은 분단을 거쳐 전면전으로 이어졌고 송기주는 한국전쟁 중 납북되어 소식이 끊겼기 때문이다.⁶⁰⁾

3) 의의와 한계

이원익 등과 송기주의 타자기는 한글 기계화의 효시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기술적인 면만 따져 보아도 글자꼴, 자판 배열, 타자 메커니즘, 타자 속도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 일례로 이들 타자기를 직접 사용해 본 공병우의 회고에 따르면 이들의 속도는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빠르지만, 영문 타자기의 속도에 비하면 절반 정도”⁶¹⁾였다고 한다. 언어학, 기계공학, 인체공학, 통계학 등 전문지식의 뒷받침 없이 개인의 열정만으로 만들어 낸 타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몇 가지씩 한계를 안고 있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한글 타자기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모아쓰기, 가로쓰기, 한글 전용 가운데 기술자

58) 송기주, “지도 그리는 이야기: 世界地圖는 정말로 마질까”, 『조선일보』, 1938. 2. 27, 4면.

59) “한글타자기 완성: 십육년래 고심의 결정”, 『동아일보』, 1949. 4. 24, 2면.

60) 장봉선은 송기주가 “타자기 기술자로 납북되어 체코에서 한글타자기를 연구한다”는 말을 “1959년 3월 라이프치히 박람회장에서 북한 학생들에게 들은 바 있다”고 한다. 장봉선, “한글사무자동화의 발전사: 한글사무자동화의 연혁 (I)”, 158쪽.

61)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82쪽.

나 발명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아쓰기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것 정도다. 가로쓰기나 한글 전용은 한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기술자나 발명가 개인의 역량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로마자 타자기는 로마자 사용자들이 글을 쓰던 방식을 그대로 기계에 옮겨 만들었다. 따라서 로마자의 기계화가 로마자로 글을 쓰는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로마자 타자기를 개조하여 만든 한글 타자기는 한글 사용자들이 글을 쓰던 종래의 방식과는 잘 맞지 않았다. 이미 존재하는 글쓰기의 형태를 기계에 옮긴 영문 타자기와 달리, 한글 타자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글쓰기의 양상 자체가 바뀌어야 했던 것이다.

4. 남한 사회의 격변과 타자기 시장의 형성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행위다. 그렇다면 한 사회의 글쓰기 문화가 바뀌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개인들의 작은 변화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집단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의 정책이 바뀌거나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 특정 문화를 일거에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의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1940년대 말까지 한글 타자기는 수십 대의 수입 물량도 팔지 못할 정도로 시장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약 20년이 지난 1968년, 남한의 정부 각 부처에서 이용 중인 한글 타자기를 합치면 11,163대에 이르렀고,⁶²⁾ 여러 제조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누계 6만2천여 대에 이르는 타자기가 팔려 나갔다.⁶³⁾ 20년 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 이렇게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절에서는 1950-60년대 타자기 시장의 팽창의 요인을 조직화된 집단적 수요가 출현했다는 데서 찾고자 한다. 이 무렵 앞 세대의 타자기보다 한 발 나아간 타자기들이 시장에 선보였을 뿐 아니라,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

62) 황해용, “한글기계화와 표준자판”, 『과학기술』 2권 3호 (1969), 37쪽.

63) 이순룡(李順龍), “한글타자기 글자판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표준자반평정을 위한 세벌식과 네벌식의 비교연구”, 『동아논총』 6 (1970. 7), 102쪽, 각주 1번.

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서서히 늘어났으며, 무엇보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비대해진 군이 집단적으로 한글 타자기를 수용하여 시장을 창출했다. 이들 요인들을 고루 고려하지 않고는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설명하기 어렵다. 기존의 서술이 개별 발명가와 그들의 발명품의 우열을 비교하는 데 머물러 있었던 데 비해, 이 글은 수요자 집단의 출현에 시선을 돌려 한글 타자기의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려 한다.

1) 공병우와 세벌식 ‘속도’ 타자기

해방과 함께 한글을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한 정치적 행위였던 시기가 끝났다. 그러자 남북한 분할 점령에서 단독정부 수립에 이르는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도 한글 기계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조선발명장려회’에서는 1949년 3월 한글 타자기를 현상 공모하였는데, 7월 9일 발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은 없었지만 세 명이 2등상, 두 명이 3등상을 받아 여러 발명가들이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⁶⁴⁾ 그런데 세 명의 2등 입상자 중 한 명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안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의사였다. 그는 바로 한국 최초의 개인 안과병원 ‘공안과’의 설립자이자 원장이었던 공병우(公炳禹, 1907-1995)였다.⁶⁵⁾ 공병우는 1950-60년대 한글 타자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다. 그가 개발한 ‘속도’ 타자기가 인기를 끌면서 남한 전체의 타자기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공병우는 1907년 1월(양력) 평안북도 벽동군(碧潼郡)에서 태어났다.⁶⁶⁾ 벽동소학교, 의주 농림학교, 평양 의학강습소를 다녔으나, 모두 정규 졸업을 하기 전에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상급 시험에 합격하여 마쳤다.⁶⁷⁾ 평양

64) “한글타자기 모집”, 『동아일보』, 1949. 3. 13, 2면; “타자기 당선자”, 『조선일보』, 1949. 7. 11, 2면.

65) 나머지 두 명의 2등 입선자는 송계범(宋啓範)과 오병호(吳秉鎬)였으며, 3등 입선자는 장례세(張禮世)와 김동훈(金東勳)이었다. 송계범과 김동훈은 이후 계속 한글 타자기 개발에 매진하여 제품을 선보인 데 비해 오병호와 장례세는 한글 타자기의 역사에서는 더 이상 자취를 남기지 않았다. 한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약리학교실 출신의 장례세라는 의사가 있는데, 동일인인지는 확실치 않다.

66) 이하 공병우의 이력은 공병우의 자서전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1-3장을 참조했다.

67) 공병우는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자서전에서 한 번도 정규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태어나는 것도 달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쓸 정도였다. 공병우, 『나는 내 식

의학강습소를 다닌 지 2년 반 만인 1926년 10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약 1년간 신의주 도립병원에서 근무한 뒤 1928년부터 경성의학전문학교 미생물학교실 유일준(兪日濬, 1895-1932) 교수의 문하에서 연구생으로 수학하였다. 1929년 안과에 입국하여 1930년 7월부터 경성의학전문학교 사타케 슈이치(佐竹秀一) 교수 아래 조수(助手)로 취직하였고, 1933년에는 그의 능력을 높이 산 사타케의 추천으로 경의전 조수 신분을 유지한 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교실 도쿠미즈 요시토미(徳光美福) 교수의 개인 연구생이 되어 박사학위를 목표로 연구를 계속하였다. 1936년부터 해주 도립병원 안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도쿠미즈의 지인이 있는 나고야제국대학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 7월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년간 해주 도립병원에서 근무한 뒤, 1938년 9월 서울에 한국 최초의 개인 안과병원 ‘공안과’를 열었다. 공안과는 당시 유행하던 감염성 안질환 트라코마(trachoma)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여 큰 명성을 얻었고, 공병우는 이 당시 큰 부를 쌓아올렸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인들이 떠나간 경성의학전문학교가 경성의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안과 초대 주임교수로 부임하였으나,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일명 국대안)이 발표된 뒤 사직하고 공안과로 돌아갔다.⁶⁸⁾

안과의료로 성업 중이던 공병우가 한글 타자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가 공안과를 찾아 치료를 받다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설파한 뒤부터라고 전한다.⁶⁹⁾ 한글 타자기 개발과 보급에 반생을 바친 뒤에 쓴 자서전의 기록이라 사후적으로 구성된 기억일 수도 있으나, “한글만 쓰는 북한에 갔다 오겠다”며 월북한 이극로에게 당시 돈으로 4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여비를 후원했다는 것을 보면 이극로와 상당한 교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⁷⁰⁾ 공병우는 해방 직후 시력검사표를

대로 살아왔다』, 14쪽.

68) 이필웅, “경성의학전문학교 시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엮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1998), 7쪽. 공병우의 기용은 당대의 명성, 사타케 교실에서의 경력, 외과학교실 교수 백인제와의 인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69)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77-79쪽. 정확한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공안과 “개원 첫 해”라고(68쪽) 공병우가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1938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70) 위의 책, 79쪽. 공병우는 “정판사(精版社) 위조지폐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좌익 진영의 원성을 사기는 했으나 평생 특별히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글로 고쳐 만들고 자신의 책 『小眼科學』을 한글로 옮기던 중, 한글 타자기가 있으면 작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한글 타자기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시중에서 만족할 만한 타자기를 찾지 못하자 직접 만들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1947년 5월부터 공병우는 집 한편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진료 시간도 줄여가며 영문 타자기의 개조 작업에 매달렸다. 그는 처음부터 글자꼴이 고르지 않더라도 빠르게 칠 수 있는 타자기를 원했다. 로마자 타자기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타자기의 요체는 속도이며 표음문자인 한글로는 로마자 못지않은 타자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은 자음과 모음 한 별씩의 글쇠만을 지닌 두벌식 타자기였다. 그러나 두벌식으로 모아쓰기가 가능한 기계식 타자기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일이어서 다섯 달 가량의 시도 끝에 포기하고 말았다. 공병우는 반침에 따로 글쇠 한 벌을 배당하여 세벌식(초성, 중성, 종성) 타자기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었다. 다시 반 년 가량이 흐른 1948년 2월, 공병우는 세벌식의 ‘쌍초점타자기’로 특허를 출원하여 이듬해 한글 타자기로는 최초로 특허를 땀다.⁷¹⁾ 이듬해에는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1953년 미국 특허도 취득했다.⁷²⁾ ‘쌍초점’이란 활자대를 인도하는 가이드(guide)에 홈을 하나 더 파서 두 개의 홈을 갖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공병우 타자기의 초성이 오른쪽 가이드를 따라 찍히고 나면, 등글대가 한 칸 왼쪽으로 움직이고 난 자리에 중성과 종성이 왼쪽 가이드를 따라 가서 찍힌다. 오른손이 치는 초성은 움직글쇠로, 왼손이 치는 중성과 종성은 안 움직글쇠로 설계되었다(그림 8, 9).

공병우 타자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의 타자기와 구별되는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첫째, 가로 모아쓰기를 실용적으로 구현한 최초의 타자기였다. 이전의 타자기는 당대의 글쓰기 문화를 반영하여 가로로 찍어 세로로 읽도록 설계되었던 데 비해 공병우 타자기는 가로로 찍고 가로로 읽을 수 있었으므로 타자수가 글씨가 찍히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 편리하게

71) 공병우, 1949, “쌍초점타자기”, 대한민국 특허공고번호 10-1949-0000029, 1948. 2. 5 출원, 1949. 6. 24 공고.

72) Pyung Woo Kong, “Korean Typewriter,” U.S. Patent 2,625,251, filed July 8, 1949 and issued January 13, 1953.



그림 8. 공병우 타자기의 자판. 공병우는 사용자들의 의견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끊임 없이 자판을 소폭 수정했다. 사진에 보이는 자판 배열은 그 중 하나다. 다만 초성은 오른쪽에, 중성과 종성은 왼쪽에 배열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다. 맨 위의 숫자 줄까지 자모가 배당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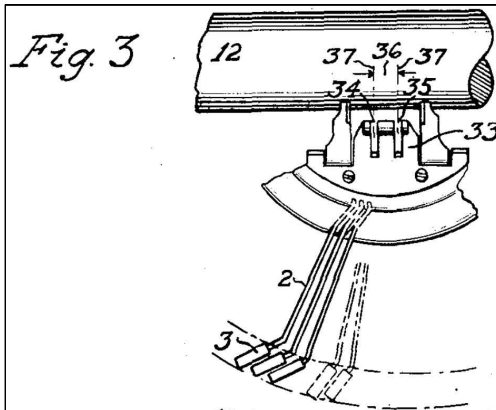


그림 9. 공병우 타자기의 ‘쌍초점’ 가이드. 오른쪽 가이드(35)를 따라 초성이 찍히고 동글대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중종성이 왼쪽 가이드(34)를 따라가 찍힌다. Pyong Woo Kong, “Korean Typewriter,” U.S. Patent 2,625,251.

타자할 수 있었다. 둘째, 글쇠 별수를 줄여 빠르고 직관적인 타자가 가능한 타자기였다. 이전의 다섯벌식 또는 네벌식 타자기는 글자를 찍을 때마다 해당 음절글자가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해당 음절글자의 모음이 가로모음인가 세로모음인가 등을 생각하고 글쇠를 눌러야 하므로 타자 동작마다 타자수의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공병우 타자기는 타자수가 이런 판단을 내릴 필요 없이 기계적으로 손을 올리면 되므로 로마자 타자기처럼 빠르게 칠 수 있었다. 1966년의 통계에 따르면 숙련된 공병

우식 타자수는 로마자 타자기보다도 타수 기준으로 30퍼센트 빨랐다.⁷³⁾ 셋째, 글자의 조형성을 포기하고 속도와 타자 능률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다른 타자기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타자기였다. 공병우는 타자기에 대해 완고할 정도로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타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글자 체제에 대한 과학적 실용적 가치를 무시하고 종래의 근거 없는 다만 습관상의 미적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비과학적 자체를 찍는 비능률적인 타자기를 고안하고 싶지는 않다”고 천명함으로써, 고르지 않은 자형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그 가치를 주장하였다.⁷⁴⁾ 타자기는 빠른 속도로 글씨를 찍어내어 문서를 유통시키면 자신의 임무를 마친 것이며, 가지런한 글씨를 원한다면 나중에 인쇄기나 조판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병우 타자기는 받침이 있건 없건 짧은 모음 한 가지로 두루 쓰기 때문에 글자꼴이 고르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모든 이들이 공병우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글자꼴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타자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기도 했다.

미국 언더우드사와 주문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특허까지 출원하면서 공병우는 1950년 무렵 적극적으로 타자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최대의 안과 병원 일을 제쳐 두고 타자기에 매달린 것은 단순한 여가(餘技)는 아니었다. 그의 일생을 통해 드러나듯 공병우는 매우 고집이 켜였으며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는 성향이 있었다. 개인적 경험들을 통해 그는 서구식 효율과 속도의 가치를 높이 여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한글 전용과 한글 기계화가 한국 사회의 효율과 속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근대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타자기 생산을 협의하러 미국에 갔다가 1953년 돌아온 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웃의 비웃음을 아랑곳 않고 “한복을 모조리 이웃이나 일가에게 나눠준 다음, 장독을 부숴 없애고 변소를 수세식으로 고쳐 안방 옆에다 당겨 놓”은 뒤, “온돌방에 마루를 깔

73) 다만 영문은 1타가 1자인데 비해 한글은 2-3타가 1음절글자라는 점, 반면 한 낱말의 글자수는 한글이 영문보다 대체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타자 능률의 비교는 쉽지 않다. 이순룡, “한글 타자기의 사용 및 교육실태”, 『경영연구』 36호 (1966. 10), 72-73쪽.

74) 공병우, “내가 고안한 쌍초점(雙焦點) 한글 타자기(打字機)”, 『한글』 107호 (1949), 51-52쪽.

아 신발 신은 채 들력거리게 한” 것이었다.⁷⁵⁾ 한글 전용과 타자기의 사용도 공병우에게는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과업이었다. “제한된 능력 이상으로 인간이 일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타자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한복과 마찬가지로 허례허식에 불과한 한자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⁷⁶⁾ 자신의 발명이 한국을 바꾸리라 믿으면서, 공병우는 타자기 시제품을 들고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2) 공병우 타자기와 군(軍)

그러나 공병우 타자기에 대한 시장의 첫 반응은 공병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타자기는 인쇄기가 아니라는 공병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글 전용 가로쓰기 타자기, 게다가 아랫줄이 들쭉날쭉한 글자를 찍는 타자기가 과연 쓸모가 있겠느냐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 한국인들의 반응이 미온적인 가운데 미군정청 관련 인사가 공병우 타자기에 관심을 보여 문교부 장관 앞에서 시연까지 주선했 주었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그런 호의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⁷⁷⁾ 1950년 초에 언더우드사가 제작한 시제품을 받은 공병우는 명사들을 모아 ‘한글 속도 타자기 보급회’를 만들기도 하고, 미국 문화공보원의 요청으로 명동 조지야(丁字屋) 백화점에서 타자기를 시연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시연회의 청중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역시 한자를 찍을 수 없다거나 글씨 모양이 좋지 않다는 불평을 하곤 했다.⁷⁸⁾

75) “한국의 유아독존 (6): 공병우씨(의학박사)”, 『한국일보』, 1965. 4. 11, 6면. 월반과 파격을 거듭한 그의 젊은 시절 경험도 이러한 성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76) 위의 글.

77) 공병우는 미국인이 “미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 스미드(Simth)씨”라고 기억하고 있으나 그 직함은 정확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은 1945년 9월부터 1948년 9월까지 최현배가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과 고문관 등의 면담을 주선했 준 것으로 보아 스미스가 미군정청과 관련 있는 인물임은 사실로 보이지만, 정확한 이름과 직책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병우의 회고에 따르면 스미스는 군정청 문교부에서 김준성(재미교포, 목사)이 개발한 풀어쓰기 한글 타자기 200대를 들여 와 배포했지만 실용성이 없어서 다시 영문 타자기로 개조하여 사용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공병우의 발명에 큰 관심을 보여 매주 그를 찾아왔다고 한다.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90-92쪽.

국내의 미온적인 반응에 실망한 공병우는 타자기 문화에 익숙한 미국인들이 보인 관심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다. 남한 문교부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주한미국경제원조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를 찾아가 자신의 타자기를 원조 물품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침 송기주도 비슷한 요청을 한 터라 원조처는 공병우 타자기와 송기주 타자기를 각 100대씩 문교부에 원조해 줄 것을 승낙하였다.⁷⁹⁾ 세벌식 가로쓰기(공병우식)와 네벌식 세로쓰기(송기주식) 타자기를 3개월 동안 문교부 공무원들에게 가르치고 향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경제원호처에서 타자기의 주문까지 끝낸 시점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⁸⁰⁾

전쟁은 한반도의 모든 이들에게 시련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기회를 잡기도 했다. 공병우에게도 한국전쟁은 시련이자 기회였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 공병우는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되었다. 1946년의 “정판사(精版社) 위조지폐 사건” 공판 과정에서 고문 수사와 증거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 공병우는 백인제와 함께 용의자들을 진찰한 뒤 고문 주장에 반대되는 소견을 냈다.⁸¹⁾ 정판사 사건으로 조선공산당이 큰 타격을 입고 결국 남한에서 불법화되었으므로 북한측은 서울을 점령한 뒤 공병우를 정치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수감되어 있던 공병우는 한글 타자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기치 않았던 기회를 잡게 되었다. 타자기에 관심을 보인 인민군 장교가 공병우를 서대문형무소에서 빼내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타자기를 설계하도록 해 준 것이다. 공병우는 타자기 설계도를 그리는 척하며 시간을 끌다가 인민군이 서울에서 퇴각할 때 혼란을 틈타 달아났다.

가족과 다시 만난 공병우는 1.4 후퇴를 맞아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

78) 위의 책, 93-95쪽. 조지야 백화점은 1922년 문을 연 일본계 백화점으로, 이후 국산품 장려관과 미도파백화점을 거쳐 2002년 이후 롯데백화점 명동점으로 개칭하였다. “한글 속도 타자기 보급회”의 회장은 최현배, 위원은 백인제, 주요한, 이광수, 정인섭 등 당대의 명사들이었다.

79) “공박사 고안 타자기 미국에서 대량제작”, 『경향신문』, 1950. 1. 18, 2면.

80)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94-96쪽.

81) 공병우는 고문 여부에 대해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었고, 용의자 이관술(李觀述)의 실명 이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료성 백내장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위의 책, 98쪽.

기에서 해군본부 인사국장 김일병 대령이 해군참모총장 손원일(孫元一, 1909-1980)의 지시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손원일은 부산 해군본부 임시청사의 미군 고문관실에 갈 때마다 “타자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곤” 했는데, 국산 타자기의 소식을 듣고는 구입을 지시한 것이다.⁸²⁾ 손원일이 타자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밖에도 몇 가지 실마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가 평안남도 강서 출생으로 송기주(1900년 강서 출생)와 동향의 동년배라는 점, 젊은 시절을 중국 상하이와 영국 등 외국의 대도시에서 보내면서 서구식 글쓰기 문화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점, 남한 해군을 창설하고 미군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군 조직의 효과적인 문서 생산과 유통 방식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점 등이다. 당시 남한 군 수뇌부의 대부분이 구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손원일은 중국과 영국에서 민간 항해사로 일했으므로, 일본식 공판타자기나 세로쓰기 타자기보다는 속도에 중점을 둔 가로쓰기 타자기가 그가 생각하는 타자기의 상에 잘 들어맞았을 것이다. 게다가 당대 타자기로 이름을 알린 나머지 한 사람 송기주는 전쟁 중 행방이 묘연해졌으므로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은 공병우 뿐이었다.

해군참모총장이자 해병대 창설자가 후원자가 되면서 공병우 타자기는 빠른 속도로 군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해군본부 인사국은 한국군 최초로 공문서를 타자기로 작성한 부서가 되었다.⁸³⁾ 공병우는 육·해·공군에서 뽑혀 온 15명의 군인을 가르쳤고, 이들은 경상북도 영천의 3군 합동 타자훈련 학교의 교관이 되어 각 군에 공병우 타자기를 가르쳤다. 손원일은 해병대 타자 교육을 위해 200여 대의 공병우 타자기를 군수 물자로 수입했으며, 여군에게도 타자를 가르쳐 육, 해, 공 각 군의 타자수 교관으로 육성했다. 진해의 해군 기술하사관 양성기관 중 하나인 경리학교(經理學校)에도

82)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가슴 넓은 사나이의 해군사랑 이야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480쪽;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124-125쪽. 손원일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아들로, 평양 광성고보를 졸업한 뒤 중국 상하이로 이주하여 상하이 국립중앙대학 항해과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항해술을 연구하였다. 해방 직후 해군 창설을 주도하여 한국전쟁을 거치며 해군과 해병대가 자리를 잡는 데 기여했다.

83)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480쪽.

‘한글타자기교육대’가 설치되어 1952년 2월부터 5주 안팎의 단기 한글 타자 교육과정을 개설했다.⁸⁴⁾ 공병우 타자기는 곧 군의 표준 타자기가 되었다. [그림 10]에 보이는 1953년 7월의 휴전협정문 국문본⁸⁵⁾도 공병우 타자기로 쓴 것인데, 공병우는 남한은 비록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한글 타자기는 휴전회담장에 나가 중공군과 인민군 대표의 부러움을 샀다는 이야기를 두고두고 자랑으로 여겼다.⁸⁶⁾ 휴전 후에도 손원일은 계속 영전하여 국방부 장관(1953-1956), 초대 주서독대사(1957-1960) 등을 역임했다. 그에 따라 전군은 물론 국방부와 외무부도 공병우 타자기를 대량 구매하였다. 외무부의 실력자 김동조(金東祚, 1918-2004)도 차관 재임 중 한글 타자기를 외무부 각 과에 한 대씩 배치하도록 결정하였다.⁸⁷⁾

공병우는 군이 공병우 타자기의 최대 수요처가 된 것을 “군은 형식보다는 능률과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미군과 인민군이 남한의 공무원보다도 자신의 타자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손원일이나 김동조, 나아가 이승만과 같은 거물의 후원이 없었더라도 공병우 타자기가 이처럼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군인이라고 모두 가로 쓰는 순 한글 문서를 선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이나 만주군 경력자가 남한 군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손원일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일례로 백선엽은 1957년 육군 참모총장이 된 뒤 한글 타자기로 찍은 공문이 읽기 불편하다며 한자를 섞어 손으로 문서를 써 올리도록 지시했는데, 이승만이 한글날 담화에서 한글 전용 방침을 재

84) 1952년 5월 현재 1기 45명, 2기 34명이 훈련을 마쳤다.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해군사 제2집(행정편)』(해군본부 정훈감실, 1958;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1990), 266-267쪽.

85) <http://upload.wikimedia.org/wikisource/ko/3/31/Jungjunsig.jpg> (2011. 8. 31 접속).

86)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142-144쪽.

87) 김동조는 외무부 차관 재임 중(1957. 5-1959. 9)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 縱書로 수기하던 기존의 결재서류 작성방식을” “각 과마다 한글과 영문 타자기를 각각 한 대씩 배치해 일시에 세로쓰기로 전환”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橫書로 서류를 작성하는 부서는 외무부와 국방부 뿐이었다”고 한다. 김영모 정리, “김동조 회고록: 비화 내가 겪은 한외교(10)”, 『문화일보』, 1999. 8. 21. 한편 김동조는 손원일과 사돈 사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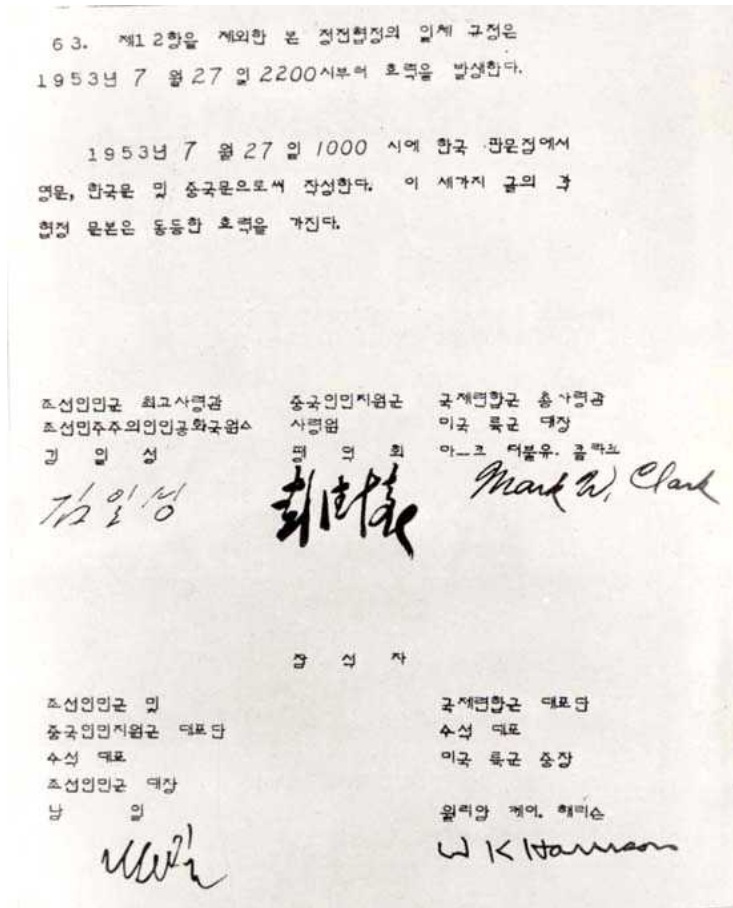


그림 10. 공병우 타자기로 찍은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세벌식 타자기의 특징인 아래줄이 고르지 않은 글씨체가 보인다.

천명하며 지시를 철회한 일도 있다.⁸⁸⁾ 이승만은 “해외에서 40년 생활에 잡지 주보 등 발간을 (……) 대부분을 순국문으로 썼”을 정도로 한글전용론에 기울어 있었고,⁸⁹⁾ 중요한 외교 서한을 타자기로 작성하고 타자하는 자신의 모습을 언론에 내보낼 정도로 타자기의 가치를 높이 사고 있었으므로 한글

88)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138-139쪽.

89) “한글의 의의와 가치를 강조 (1956년 10월 24일)”,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

타자기 발명가들에게 적잖이 힘이 되었다.⁹⁰⁾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고위층의 개인이 한글 타자기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군이나 민간이나 보다도 오히려 그가 얼마나 서구 문물을 많이 접한 인물이나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병우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육해공군, 각군 사관학교, 국방부, 외무부 등 공병우 타자기의 주 거래처는 모두 손원일의 영향력이 미치는 집단이었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공병우는 서구화된 엘리트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 가장 잘 조직되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이었던 군과 정부를 고객으로 확보한 것이다.

3) 시장의 성장과 분화: 예고된 표준화 논쟁

1965년까지 공병우는 “세로쓰기와 한자병용의 장벽을 뚫고” 약 3만 대의 타자기를 팔았다.⁹¹⁾ 이전의 타자기들이 많아야 수십 대 시장에 풀렸던 데에 비하면 공병우 타자기는 실로 시장을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1). 공병우 타자기가 일단 시장을 만들어내자 한글 타자기 시장은 차츰 커나갔다. 한글 타자기의 효용에 대한 회의론도 점차 누그러졌다. 앞서 소개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한글전용의 소신을 견지했고 강경한 한글전용론자였던 최현배가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두 차례(1946-1948, 1951-1954) 재직하는 사이 한글전용이 공식적으로는 문교 정책의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서구식 출판물이 점점 많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로쓰기 일변도였던 문서 생활에도 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점차 가로쓰기 한글전용 타자기도 쓸 만한 물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1961년의 5.16 군사정변은 타자기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대식 문화가 사회 각 분야를 지배하면서, 군에서 먼저 자리 잡은 한글전용 타자기 문서가 다른 분야로 퍼져 나갔다. 군사정권은 전 정권의 한글 전용 기조를 계승하고, 그 명분의 하나로 타자기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⁹²⁾ 그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행정 장비 근대화 계획

90) 이승만은 휴전을 권유하는 아이젠하워의 친서에 대한 답장을 진해 별장에서 직접 타자기로 썼다(“진해서 중대 국무회의”, 『경향신문』, 1953. 6. 2, 1면). 또 이승만의 80회 생일을 알리는 신문 기사에 실린 그의 사진도 타자하는 모습이었다(“[오늘의 후랏수]통일애의 정열”, 『경향신문』, 1959. 3. 26 조간, 1면).

91) “한국의 유아독존 (6): 공병우씨(의학박사)”, 『한국일보』, 1965. 4. 11, 6면.



그림 11. 『과학과 발명』 창간호(1963. 3) 표지에 실린 공한글타자기회사의 조립실 작업 광경. 공병우 타자기는 1960년대 전성기를 맞으며 한글 타자기 시장의 성장을 선도하였다.

의 일환으로 전국 시, 군마다 30대씩 한글 타자기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내

- 92) “[사설] 한글전용에 관한 시비론”, 『동아일보』, 1961. 12. 18, 1면. 동아일보는 새 정부가 한글전용 방침을 고수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듬해의 사설에서도 “기계를 위해서 문자체계를 고친다는 것은 구두를 위해서 발의 크기를 고친다는 것과 다름 없는 이야기”라며 한글전용 정책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사설]한글전용에 대한 몇가지 이견”, 『동아일보』, 1962. 5. 3, 1면.

리기도 했다. 수천 대의 타자기 시장이 새로 열리며 “단군 이래 처음으로 한글 타자기의 전성시대”를 맞은 것이다.⁹³⁾ 군을 중심으로 공병우 타자기가 보급되면서 타자 문화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공병우 타자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타자수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사설학원에서 타자를 배웠다. 일문 타자기 또는 그것을 개조한 (완성형)한글 타자기가 전부였으므로 타자 동작도 “한 자 또 한 자 — 자판 위를 혹은 가로 혹은 세로 오고 가는 핸들”을 움직여 “아물아물한 활자면을 종일토록 헤매이면서” 글을 찍는 것으로 묘사되었다.⁹⁴⁾ 하지만 1950년대에는 군에서 배출한 남성 타자수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 1952년 에는 해군이 진해 통제부 종합학교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타자 대회를 열기도 했다.⁹⁵⁾ 그리고 타자 동작도 “열 손가락의 촉감이 피아노의 키-와도 같이 유쾌한” 축지 타자로 바뀌었다.⁹⁶⁾

하지만 이렇게 불어난 시장을 공병우 타자기가 모조리 독점할 수는 없었다. 공무원 사회와 민간 기업에서는 공병우 타자기의 위치가 군에서만큼 확고하지 못했다. 공병우 타자기가 만들어내는 들쭉날쭉한 글자꼴은 네모 반듯한 글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가로쓰기와 한글전용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회와 민간 기업은 대체로 군보다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더욱이 일부 공무원들은 세벌식으로 쓴 글씨는 나중에 받침을 임의로 첨삭하여 변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병우 타자기가 공문서 작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병우 타자기보다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더 가지런한 모양의 글씨를 찍을 수 있는 이른바 “체재(體裁) 타자기” 시장이 형성되었다. 김동훈(다섯벌식), 장봉선(다섯벌식), 백성죽(네벌식), 진윤권(네벌식) 등이 자신만의 제품을 들고 확대된 한글 타자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중앙공업연구소의 공학자 송계범

93)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144-145쪽; 139쪽.

94) 조인순(趙仁順), “오직 일하는 질거움: 어느 직업여성의 일기”, 『경향신문』 1946. 11. 24, 4면. 한편 일제강점기의 “타이프스트”에 관한 신문 기사의 상당 부분은 염문과 그에 따른 분쟁 보도였다. 타자기가 여성의 사무기기로 인식되면서 남성 중심의 사무실 문화에서 은밀한 성적 함의를 가지게 된 것은 서구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 Angelika Führich, “Woman and Typewriter: Gender, Technology, and Work in Late Weimar Film,” *Women in German Yearbook* 16 (2000), pp. 151-166.

95) “한글타자경기대회”, 『경향신문』, 1952. 8. 25, 2면.

96) 정세시리아, “[職餘閑談]생의 회열”, 『경향신문』, 1950. 3. 5, 2면.

(宋啓範)은 전자 회로를 이용하여 자모를 입력 순서대로 모아 써 주는 인쇄전신기(텔레타이프)를 개발하여 관심을 끌기도 했다.⁹⁷⁾ 특히 김동훈은 앞서 말한 1949년 조선발명장려회의 타자기 현상 공모에서 3위 입상한 이래 다섯벌식 타자기를 연구하여 상업화까지 성공했다⁹⁸⁾ 김동훈 타자기는 체재 타자기 중에서 가장 널리 시장에 보급되어 공병우 타자기와 사실상 과점 체제를 형성했다. 1968년 10월 총무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병우 타자기와 김동훈 타자기는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11,163대의 타자기 가운데 각각 6,702대와 4,264대를 차지했다. 국방부(3,729대 중 3,169대), 외무부(134대 중 134대), 체신부(351대 중 237대), 내무부(140대 중 84대)가 공병우 타자기를 선호했던 데 비해 김동훈 타자기는 문교부(240대 중 150대), 원호처(164대 중 163대), 전매청(104대 중 97대) 등에서 많이 쓰였다.⁹⁹⁾ 공병우도 시장의 이런 흐름을 마냥 모른 채할 수는 없어서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한 체재 타자기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김동훈에게 두 회사의 통합을 제의하기도 했다.¹⁰⁰⁾

이렇게 시장이 분화된 것은 타자수 개인이 어떤 타자기를 선호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수를 고용하는 각 집단이나 기관이 한글 타자기에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타자기는 무엇을 하는 기계인가”라는 규범적 질문으로 연결된다. 공병우 타자기를 선호하는 집단은 타자기는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로 글을 찍어 주는 기계라고 인식했던 반면, 체재 타자기를 선호하는 집단은 타자기를 반듯하고 단정한 문서를 만들어 주는 기계라고 여겼다고 볼 수 있다. 한참 시장이 팽창하면서 “세벌식 타자기와 다섯벌식 타자기가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었던”¹⁰¹⁾ 상황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시장이 성숙하고 본격적으로 표준화 논의가 진행된 1960년대 후반에는 각자 타자기의 본질에 대해 다른

97) 송계범의 인쇄전신기는 크고 비쌌기 때문에 민간 사무실 등에서 구입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자 회로를 이용한 모아쓰기 매커니즘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제작은 일본 오키(沖)전기회사에서 맡았다. “「한글 맞춤법」을 척척: 전기네 「텔레타입」 1분간 360자 타자”, 『경향신문』, 1961. 1. 29, 조간 3면.

98) 김동훈, 1959, “한글타자기”, 대한민국 특허공고번호10-1959-0001360, 1959. 1. 20 출원, 1959. 6. 13 공고.

99) 황해용, “한글기계화와 표준자판”, 37-38쪽 표1.

100)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 140쪽. 이 제의는 김동훈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01) 위의 책, 140쪽.

관점을 견지했으므로 표준화 논쟁은 쉽게 해결될 수 없었다.

5. 나오며

한글 타자기의 개발은 현실적 수요에 부응할 뿐 아니라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당위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정이 되었다. 한글 타자기는 로마자 타자기와 달리 현존하는 글쓰기 방식을 그대로 기계에 옮기는 방식으로 만들 수 없었다.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를 받아들여야 쓸만한 한글 타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글 타자기의 개발이란 로마자 타자기의 활자를 한글 자모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큰 과제였다. 한글 기계화란 실상 한글의 쓰기 문화를 서구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공병우 타자기가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것은 기존 글쓰기 문화와 절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한글 쓰기의 서구화라는 목표를 과감하게 추구했기 때문이다. 공병우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신·구의 절충보다는 전면적인 서구화를 택했고, 때마침 남한사회 격변의 방향이 그의 신념과 잘 맞았으므로 공병우 타자기는 시장에서 맨 먼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공병우 타자기의 성공은 단순히 자판 배열이나 타자기 메커니즘의 우열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술혁신의 궁극적인 원동력은 발명가 한두 명의 창의력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신기술에 대한 수요와 지원이다. 사회가 그 기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또 그 기술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그 사회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비록 공병우가 한글 타자기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한글 타자기의 역사를 공병우와 같은 발명가의 전기와 등치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역사 해석으로 호를 위협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50-60년대에 한글을 쓰는 문화가 크게 달라졌다는 구조적 변화, 그리고 그 구조적 변화 안에서 리더십을 행사한 손원일 같은 인물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한글 타자기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확대되고 군 이외의 수요자 집단이 형성되면서 공병우 타자기가

누렸던 독점적 지위는 점차 침식되었다. 특히 군과 군 관련 부서를 제외한 정부 부처는 공병우 타자기의 자형에 불만을 품고 김동훈 등이 만든 체재 타자기를 선호했다. 공병우 타자기는 군의 선택을 받아 급성장했지만, 공병우 타자기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초창기의 시장 구도는 영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군보다 글쓰기에 대한 옛 관념에 더 강하게 매여 있던 공무원 집단이 한글 타자기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이 더 이상 균질하게 팽창하지 않으리라는 예고와 같았다. 다른 선호도를 가진 수요자 집단이 성장하면서, 한글 타자기 시장 전체의 팽창은 곧 1960년대 말의 표준화 논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The Conflict between “the Most Scientific Character System” and Modern Technology

Issues in the Early History of Korean Mechanical Typewriters, 1914-1968

Tae-Ho Kim (Center for Hospital History and 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early history of Korean mechanical typewriters, to point out that the market for Korean typewriters could emerge hand in hand with a transformation of writing culture in Korea, from vertical writing mixed with Chinese characters to horizontal writing only in Korean characters (Hangul). Since 1914, early inventors of Korean typewriters realized that Korean typewriters, modified from Roman alphabet typewriters and thus based on the Western writing culture, were not fully compatible with traditional writing system and sought for technical compromises. It was only after the Korean War that inventors could rely on South Korean military as the biggest buyer, which was relatively free from traditional writing culture. The military especially preferred Kong Pyung Woo's speed-oriented typewriter. Once the foundation was laid for the typewriter market, competing inventors challenged Kong's dominance by the late-1960s, reflecting diverse demand from consumers.

Key words. typewriter - Korea, Hangul, Kong Pyung Woo (a.k.a. Gong Byung-Woo),
technology - writing, technology - localization